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20호

이주시대, 스포츠로 경계를 넘다

1. 20cm 농구공, 이주청소년과 한국을 잇다
2. “스포츠는 기본권...한국 모든 친구들이 즐길 수 있길”

이준희 한겨레 기자

고진현의 창(窓)과 창(槍)

스포츠클럽 등록을 둘러싼 체육 기득권 세력의 교묘한 방해

고진현 스포츠서울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 &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모두의 축구장, 모두의K리그’ 시즌3, 1박 2일 축구클리닉...10팀 참가

이원희 스타뉴스 기자

서울시교육청

코로나로 서울 과체중,비만 학생 32.1% ... 틈틈이 체육 추진

김형환 이데일리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신일본스포츠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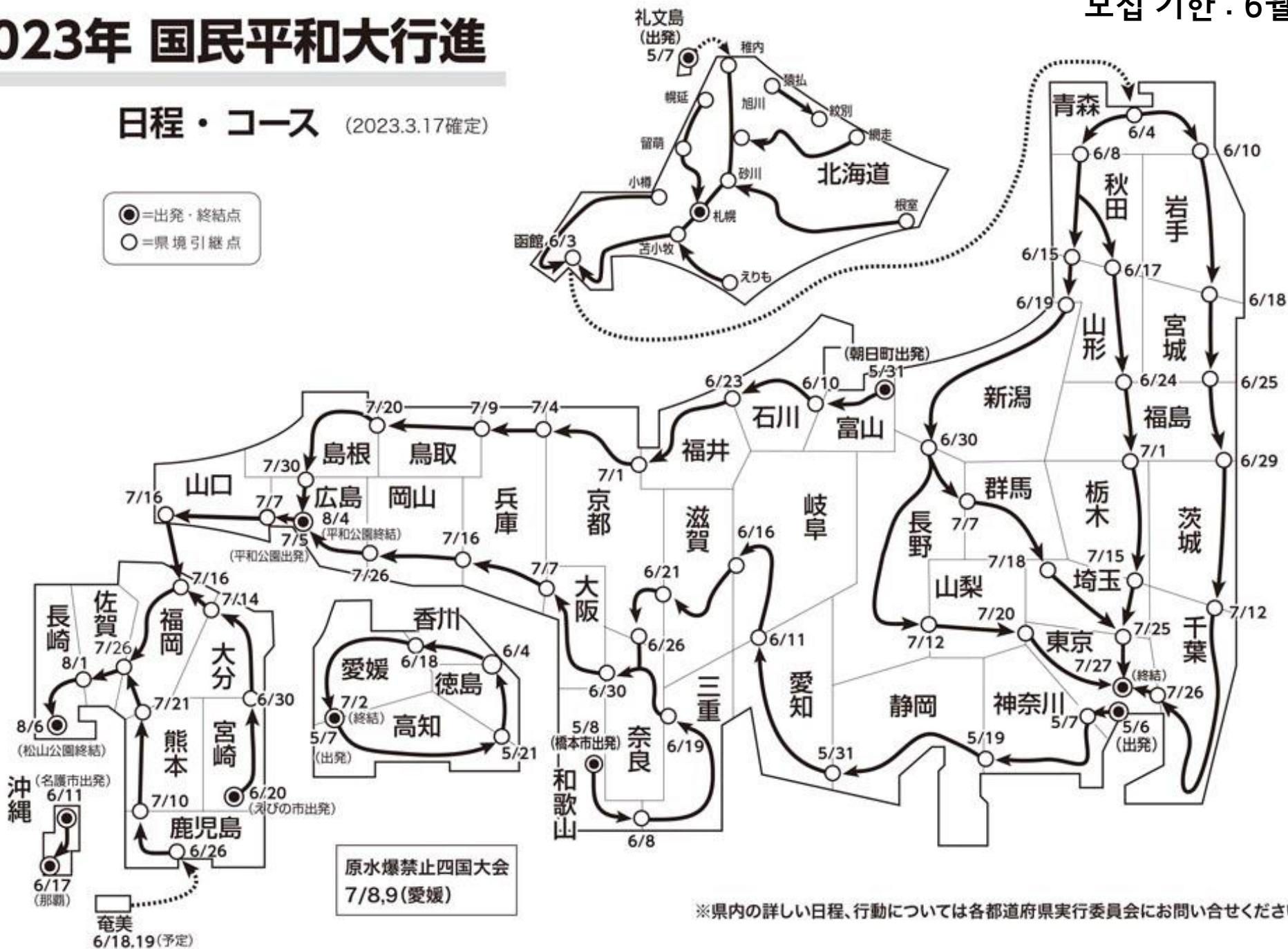
평화행진마라톤 참가자 모집

모집 기한 : 6월 13일까지

2023年 国民平和行進

日程・コース (2023.3.17確定)

●=出発・終結点
○=県境引継点



※県内の詳しい日程、行動については各都道府県実行委員会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일정(안)

- 7월 12일(수) 평화 대행진 치바(千葉) 현 코스 출발
- 7월 26일(수) 치바 코스 종점. 출발 날부터 종점 날까지 도중에서 참가
- 7월 26일(수) 평화 대행진 도쿄 코스 출발
- 7월 27일(목) 도쿄 코스 종점.
- *** 여기까지는 평화 행진 실행 위원회가 비용 부담

- 7월 28일(금), 29(토) 자유시간, 가나가와 현 워킹 교류, 가나가와 현 숙박
- 7월 30일(일) 매달 가와사키 마라톤 참가(구경), 교류
- *** 여기까지는 신일본 스포츠 연맹 가나가와 현 연맹이 비용 부담

- 7월 31일(월) 신칸센으로 히로시마로 이동
- 8월 1일(화) 평화 대행진 히로시마 코스 도중에서 참가
- 8월 4일(금) 행진 종결 (히로시마 평화 공원), 오후 국제 회의
- *** 여기까지는 평화 행진 실행 위원회가 비용 부담

- 8월 5일(토), 6일(일) 평화 집회 참석 후 귀국
- *** 여기까지는 신일본 스포츠 연맹 전국 연맹이 비용 부담

1. 일본 체재 중의 교통, 숙박, 식사 등 비용은 일본 측에서 부담합니다. (개인적 비용 제외)
2. 평화 행진중 숙박 시설은 각 지방의 평화 행진 실행위원회가 확보합니다.
3. 일본에 체류 중 질병이나 부상을 당할 경우를 상정하여 사전에 본인 부담으로 여행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합니다.

‘전체 일정 중 일부만 참여’도 조율 가능합니다.
 참여 희망자는 간단한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자유양식 A4 2매 이내)를
sports-cm@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창간기획 - 이주시대, 스포츠로 경계를 넘다

20cm 농구공, 이주청소년과 한국을 잇다

“감독님, 저희도 농구하고 싶어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5시30분. 서울 용산구 보성여고 체육관에는 스무명 남짓 아이들이 모인다. 농구를 하기 위해서다. 연습 시작 전엔 매번 작은 소동이 생긴다. 부쩍 키가 큰 몇몇 중학생이 천수길(62) 한국농구발전연구소장을 졸라댄다. 중학생인 이들은 이제 농구 수업에 참여할 수 없지만, 천 소장은 마지못해 “초등학교 동생들이 다치지 않게 조심하라”며 허락한다. 반짝이는 눈에 담긴 농구 열정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다.

이곳에 모인 아이들은 여느 또래와 다를 게 없다.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달고 ‘셀카’를 올리고, 방탄소년단(BTS)이나 뉴진스 노래를 틀고 춤을 춘 뒤 틱톡에 올린다. 농구 훈련 중에도 체육관 한구석에 모여 좋아하는 아이돌을 위해 투표를 한다. 천수길 소장이 짐짓 근엄한 표정으로 다그칠 때면 못 들은 척하다가, 간식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이야기에 집중한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은, 피부색이 각양각색이라는 점이다. 다문화 농구단 ‘글로벌 프렌즈’의 훈련 풍경이다.

나이지리아 엄마·아빠를 둔 마이클스 빅토리(7)도 글로벌 프렌즈에서 처음 농구공을 잡았다. 빅토리 위로 있는 오빠 4명이 모두 이곳에서 농구를 배웠다. 아직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는 빅토리에겐 농구는 게임 ‘로블록스’와 더불어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통로다. 처음 농구단에 온 지난 2월에는 체육관 구석에서 농구공을 만지작거리기만 했지만, 두달 만에 연습경기를 뛰고 정확한 패스로 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다.

농구 수업이 없는 날, 빅토리는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낸다. 빅토리는 “체육관에 안 오는 날엔 그냥 집에서 티브이를 본다”고 했다. 그러더니 “기자님은 일이 끝나면 뭘 하느냐”고 되묻는다. ‘집에서 혼자 책을 읽는다’고 하자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그건 외로워요.” “다음번엔 꼭 로블록스를 해보고 재밌었는지 말해달라”고 신신당부하던 빅토리는 튕기던 농구공을 들고 기자 옆으로 다가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공을 바닥에서 서너 바퀴 돌린다. 그리고 이야기한다. “당신 차례예요.”(It's your turn)

다만 한국에 있는 모든 이주 청소년이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 가정을 지원하는 서울 25개구 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이주 청소년 대상 정기 스포츠 프로그램이 있는 곳은 영등포구(농구)뿐이다. 센터는 언어 교육·문화 체험 등에 중점을 둔다. 실제 글로벌 프렌즈 단원 중 상당수가 용산구 아닌 서울 다른 구나 경기도에서 입소문을 듣고 왔다. 스포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적은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한국은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하며 본격적인 스포츠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당시 한국이 추진한 정책은 소수를 위한 스포츠에 가까웠다. 특히 1982년 법을 개정하며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을 추가했고, 메달과 성적에 매달리는 엘리트 체육 중심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이어서 이른바 ‘3에스(3S)’ 정책 일환으로 프로야구도 출범했다. 모두 정권 필요에 따른 결정이었다. 지금도 한국은 ‘스포츠와 정치는 별개’라는 이데올로기가 강하지만, 실제 현실은 달랐던 셈이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논하며 스포츠 정책이 공전하는 사이 글로벌 프렌즈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천수길 소장이 사재를 털어가며 운영하고 있지만, 그도 이미 60줄에 접어들었다. 천 소장은 “농구 연습을 마치면 아이들에게 햄버거를 사주는데, 치즈버거나 불고기버거가 아니면 세트 메뉴를 못 시키게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평생 농구공을 던지며 단련해온 그의 단단한 어깨가 유난히도 작아 보였다.

한겨레 창간기획 - 이주시대, 스포츠로 경계를 넘다

“스포츠는 기본권... 한국 모든 친구들이 즐길 수 있길”

이주민을 위한 스포츠가 자리 잡은 유럽엔 장밋빛 성공사례만 있을까. <한겨레>는 지난 4월29일(한국시각)부터 엿새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이주민 당사자를 만났고, 스포츠 프로그램도 직접 참여했다. 다양한 연구자 의견도 들었다. 이들은 현재 유럽 정책에도 한계가 있다면서도 스포츠만이 가진 가능성을 강조했다.

프랑스 시민단체 '카부부'가 운영하는 이주민·난민 대상 요가 수업은 4일 파리 다부키르가에 있는 건물에서 열렸다. 파리가 지원하는 이 공간은 망명자를 위한 곳이었었는데, 카부부는 건물 2층에서 요가 수업을 진행했다. 참가자는 기자 제외 총 4명. 2명은 프랑스 선주민, 2명은 이주민이었다.

요가를 같이 해보니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함께 하며 연대감이 생겼다. 처음엔 다소 서먹했지만 안 쓰는 근육을 쓰며 서로 끄꿍대는 사이 자연스럽게 경험을 공유하는 동반자가 됐다. 경계하던 눈빛은 함께 어려운 동작을 하면서 눈을 마주칠 때 웃음과 함께 사라졌다. 비록 2시간이었지만, 수업 뒤에는 오랜 친구처럼 작별 인사를 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공감대가 있었다.

참가자 특성에 맞는 종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도 인상 깊었다. 카부부가 파리에서 여는 프로그램만 해도 축구, 농구, 조깅, 복싱, 자전거, 요가, 스텝퍼, 수영, 춤, 클라이밍, 배구, 신체놀이, 핸드볼 등 13가지였다. 이 가운데 핸드볼, 축구, 요가, 신체놀이는 오로지 여성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 구성이 다양한 이유는 프랑스가 겪은 시행착오 덕분이다. 과거 프랑스는 이주민 개개인 특성을 깊이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세속주의를 이유로 종교적 차이를 경시했다. 그러나 스포츠는 출신지, 종교, 성별, 나이, 신체 능력 등에 따라 효과가 제각각이다. 알레산드로 포로베키오 프랑스 오페라 코스트대 조교수는 “문화별로 신체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며 “이주민을 단순히 현지 문화에 ‘통합’하는 대신 ‘포용’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극우 세력이 성장하며 이주민 관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럴수록 스포츠가 가진 포용성과 유용성이 중요해진다. 앵발리드 인근에서 보드를 타던 말리게 디아티케 파노마(21)와 케냐-이탈리아계 마이냐 귀도(19)는 “킬리안 음바페가 프랑스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스포츠에 한계도 있지만, 우리는 스포츠를 발판으로 그 이상을 꿈꿀 수 있다”고 했다. 카타르월드컵에서 프랑스를 준우승으로 이끈 음바페는 카메룬-알제리계 프랑스 이민자 2세대.

파노마나 귀도 모두 스포츠가 기본권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다는 귀도는 “한국에서 스포츠를 하려면 인생을 걸고 도전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우리는 오로지 즐거워서 스포츠를 한다”고 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스포츠는 인권”이라며 “한국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보드를 타며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스포츠클럽 등록을 둘러싼 체육 기득권 세력의 교묘한 방해[고진현의 창(窓)과 창(槍)]

개방성이 자신감의 표현이라면 폐쇄성의 기저(基底)에는 욕심과 두려움이 깔려 있다. 문을 활짝 열어놓는 자신감이 쉽게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욕심만 내세우며 자기 텃밭을 빼앗기지 않을까 짐짓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간 자칫 게도 구력도 다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그동안 한국체육은 폐쇄적 풍토에서 자라왔다. 사회와 철저히 유리된 채로, 더 심하게 말하면 '고립된 섬'처럼 존재했다고 보면 된다. 올림픽 등 메가 이벤트가 열리면 오랜만에 국민들과 하나가 될 뿐, 그 행사가 끝나면 또 다시 '고립된 섬'으로 돌아가 '그들만의 사회'로 사는 게 한국 체육의 구조적 병폐였다.

사회에서 고립된 체육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지난 2016년 단행된 체육단체 통합이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대통합, 한국 체육의 구조적 변혁을 염두에 둔 정책적 결단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로부터 6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과연 기대했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을까? 정책의 성패는 현장에 달려 있다. 체육현장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국체육을 지탱했던 엘리트체육의 모델은 한계에 도달했다. 오해는 하지말자! 엘리트체육이 지향하는 국제경쟁력을 포기하자는 말이 결코 아니다. 체육의 본질적 가치가 경쟁이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체육의 국제경쟁력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게 필자의 지론이다.

다만 체육의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불변의 전략과 함께 가치와 환경,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경기력이라는 지상과제를 위해 그동안 간과했던 과정의 중요성과 인권이나 학생 선수의 최소한의 학습권 등은 이제 시대에 맞게 새롭게 수정되는 게 옳다.

과거 한국의 체육은 학교체육이 토대를 구축했다. 소수 정예의 엘리트 선수들을 학교에서 육성함으로써 한국 체육을 견인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환경 변화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불명예를 고려하면 소수 엘리트 중심의 학교체육 패러다임은 더 이상 효과를 낼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전문가라면 누구나 인재풀이 바닥 난 소수 정예의 학교체육 패러다임으로는 한국 체육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래서 제시된 대안이 바로 클럽 스포츠다. 문제는 지난 2016년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 단행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모델이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다수의 체육정책이 고민과 성찰을 통해 잉태되고 제안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의도나 정치공학적인 셈법을 통해 즉흥적으로 제시되는 게 한국 체육정책의 전반적 흐름이다.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검토하는 피드백의 과정 역시 생략되는 게 다반사다. 이게 바로 한국 체육의 부끄러운 민낯에 다름 아니다.

각설하고, 스포츠클럽이 제도권으로 들어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체육 기득권의 힘이 생각보다 세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은 아랑곳하지 않고 스포츠클럽의 제도적 진입을 자신들의 권역 침입이라도 보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클럽의 등록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야구 등 인기종목에서 도드라진다. 그것도 중앙 정부나 대한체육회의 감시와 영향이 미치기 힘든 지방에서 기득권의 텃세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은 귀담아들 대목이다. 새로운 클럽팀의 등록을 용인해주지 않는 방식도 교묘하다. 일단 이런 저런 이유로 꼬투리를 잡고 시간을 끌어 등록 기일을 넘기게 하거나 기득권 세력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한 뒤 시대착오적 담합을 통해 등록을 배제하는 방식이다. 클럽팀 등록이 지체되면 현실의 벽이 높다고 판단한 학부모나 학생들이 새로운 문화와 틀을 갖춘 클럽팀 가입을 꺼리게 되고 기득권 세력들은 폐쇄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 굳건한 철옹성을 쌓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문체부나 대한체육회로 전달되는 경로는 복잡하고 까다롭다. 체육 기득권 세력에게 더할 나위없는 호재다. 만약 지방에서 스포츠클럽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종목별 단체~해당 종목 지방단체로 이어지는 복잡한 절차와 과정이 있기에 힘없는 민원인에게 좌절감만 생길 뿐이다.

무려 6여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한국 체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클럽 스포츠가 아직 확산되지 못한 이유는 분명하다. 폐쇄성에 길들여진 체육 기득권 세력들의 강한 텃세 때문이다. 답은 늘 그렇듯 현장에 있지만 정작 감시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뒷짐을 쥐고 있어 안타깝다. 체육 기득권 세력들의 텃세가 횡행하는 가운데 체육의 진정한 가치와 건강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꿈꾸는 혁신가들의 한숨소리는 더욱 짙어질 뿐이다.

‘모두의 축구장, 모두의 K리그’ 시즌3, 1박 2일 축구클리닉... 10팀 참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공동 주최하고 하나금융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이 후원하는 '모두의 축구장, 모두의 K리그' 시즌3가 '2023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통합축구 클리닉'을 시작으로 힘찬 출발을 알렸다고 15일 밝혔다.

연맹은 "2023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통합축구 클리닉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제천축구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연맹과 K리그 9개 구단(경남·대전·부산·성남·인천·전북·제주·포항·충남아산) 통합축구팀 총 10개 팀이 참가했다. 모든 참가 팀은 각각 스페셜 선수(발달장애인)와 파트너 선수(비장애인)로 구성됐다"고 소개했다.

행사 첫째 날에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이용훈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로 친밀함을 쌓기 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축구 유튜버 고알레와 함께하는 축구 클리닉을 진행했다. 행사에 참가한 선수단은 레크리에이션 활동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축구 클리닉 시간에는 모두 진지한 자세로 슈팅, 패스, 볼 컨트롤에 대해 배웠다. 야외 일정 후에는 스페셜 선수 대상 요가 수업, 파트너 선수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끝으로 첫째 날 일정을 마쳤다.

둘째 날에는 3그룹 풀리그전으로 친선 경기를 치렀다. 친선 경기는 11인제 축구로 스페셜 선수 6명과 파트너 선수 5명으로 선발을 구성해 진행했다. 이날 경기 성적은 오는 10월 열리는 통합축구 대회 '유니파이드컵' 조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다. 모든 친선 경기가 종료된 후에는 폐회식,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하며 '2023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통합축구 클리닉'의 1박 2일간 일정이 마무리됐다.

연맹은 "이번 행사를 통해 모든 참가 선수들은 친선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함께 체험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모두의 축구장, 모두의 K리그'는 연맹과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2020년부터 선보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시즌 1, 2에서 이동 약자를 위한 K리그 경기장 안내지도를 제공해 그들의 관람 환경을 개선해 왔다. 이번 시즌3에서는 스포츠 관람을 간접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을 직접 스포츠에 참여시켜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스포츠 저변 확대에 앞장선다.

올해는 연맹, 하나금융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 '모두의 축구장, 모두의 K리그' 시즌3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축구 지원, ▲통합축구 대회 '유니파이드컵' 개최, ▲통합축구 올스타전 개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 사회적기업 '하나파워온', '하나소셜벤처'와 연계하여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로 서울 과체중, 비만 학생 32.1%... 틈틈체육 추진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신체활동 위축이 늘어나며 서울 지역 학생 과체중·비만 비율이 30%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틈틈체육 프로젝트를 추진해 체력 증진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달부터 12월까지 학생들의 체력 회복을 위해 '틈틈체육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생들의 '집콕' 현상이 두드러지며 서울 학생들의 과체중·비만 비율은 2021년 기준 32.1%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6.7%)보다 5.4%포인트 늘어났다. 지난해 서울 지역 초·중·고교생 건강체력평가 4·5등급은 13.9%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9.3%보다 4.6%포인트 늘어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복도 끝·건물 사이·운동장 모서리 등 틈새 공간을 신체활동 공간으로 마련해 아침·점심·쉬는 시간·방과후 등 틈새 시간에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틈틈체육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학교 내 자투리 공간을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초·중·고 200여교를 선정해 공간 구축비로 교당 300여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학교는 예산을 통해 복도에 탁구대 등 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운동장 코너 등 틈새 공간에 농구골대·철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틈새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50종 △게임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48종 △스포츠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50종 등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의 자투리 공간을 체육활동 공간으로 만들어 틈나는 시간에 누구나 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작은 변화를 통해 학생들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신체활동이 일상화되면 체력 향상 뿐만 아니라 더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7개 시도교육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떨어진 학생들의 체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아침 체인지(體仁智)' 프로젝트를 추진해 학생들의 아침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 비만 예방관리 실무협의회를 통해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추진하고 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영동군민의 날' 4년 만에 대면 행사...26일 영동체육관 일원

<https://www.news1.kr/articles/5053986>

군포시, '2023년 군포시장배 체육대회' 개막

<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23052208481153295>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역 문화유산·자원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

<https://www.starnewskorea.com/stview.php?no=2023052214052913322>

한국체육학회, '대한민국 e스포츠 정책 포럼' 26일 개최

<https://www.etnews.com/20230522000171>

장애인 체육활동 활기...“신체 재활·심리 안정 지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80664&ref=A>

中 선양총영사관 "구금 손준호 영사면담...인권침해 없다고 말해" (종합2보)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7105952097?input=1195m>

제주 스포츠 꿈나무들 전국무대 '도전'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33>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전 막 올렸다

https://www.chosun.com/sports/sports_general/2023/05/16/NT7K7SEWGNGLKVFLONM27

[HZQ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n.com/sports/sports_general/2023/05/16/NT7K7SEWGNGLKVFLONM27/HZQ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충북교육청, 학교운동부 선수 인권 보호 강화

<https://www.news1.kr/articles/5049084>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